

유통기업 대표 줄줄이 증인 채택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정조준’

李 정부 첫 국정감사

김범석 쿠팡 의장 등 출석 예정
‘배달앱 자영업자 상생안’ 쟁점
‘개인정보 보호’ 주요 이슈 부상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다가오면서 유통업계가 긴장 상태에 놓였다. 쿠팡, 신세계, 롯데, 무신사 등 주요 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부터 개인정보 보호, 노동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이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이 출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통업계 대표들의 국감 증인 출석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고 사장은 자기 주식 과다 보유 경위와 낮은 PBR(주가순자산비율) 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또 14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엔 기업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김기호 아성다이스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같은 날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감엔

김범석 쿠팡 의장,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 배달앱 불공정 문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홈플러스 김광일·조주연 대표, 송중화 교촌F&B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렀다.

오는 24일 열리는 종합감사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신세계그룹 G마켓과 알리바바 간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계획이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엔 한채양 이마트 대표가 이마트 기간제 사원 차별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도 홈플러스 통합합 과정 노동자 처우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도 소환된다.

이번 국감에서 유통업계를 두고 눈여겨 볼 이슈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1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앱 상생안은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가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배달플랫폼의 구간별 차등 중개수수료를 언급하며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불하

는 금액이 여전히 과도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제금액이 1만원인 주문의 경우 상위 35% 업체는 주문금액의 31.8~41.8%를 배달플랫폼에 지불한다.

보고서는 공정위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배달비 등 검토가 미진한 이유를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달앱은 지난해에도 산자위 국감에서 중개수수료 문제로 맹공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 및 이커머스 업체들은 기업 불공정 행위 관련 국회의 낚선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이슈도 주목된다. ‘개인정보 규제, 공격 목적 데이터 활용은 보장되고 있는가’ 역시 주요 이슈로 꼽혔다. 최근 G마켓이 알리바바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상황에서 국내 데이터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증인으로 나서는 가운데 G마켓을 포함한 다른 플랫폼 기업 역시 소비자 개인정보를 두고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빼빼로데이’ 기념 컬래버 패키지

/롯데웰푸드

롯데웰푸드 “이색 ‘빼빼로’ 만나보세요”

빼빼로데이 맞아 컬래버 온팩 선보

롯데웰푸드가 다가오는 ‘빼빼로데이’를 맞아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온팩 ‘빼빼로’를 선보인다.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 ‘캐치! 티니핑’, ‘이세V계 아이돌(ISEGYE IDOL)’ 등 다양한 소비자를 위한 컬래버를 진행한다.

빼빼로의 글로벌 엠베서더인 ‘스트레이 키즈’가 담긴 빼빼로데이 한정판 온팩은 ‘빼빼로 아몬드’와 ‘빼빼로 크런키’ 두 가지 맛에 적용됐으며 8개입 패키지로 만나볼 수 있다. 각 맛마다 두 가지 버전의 디자인이 준비돼 있으며, 패키지 속에는 3종의 디자인을 모두 포함해 무작위로 8개 들어간다.

‘SAMG엔터’의 인기 IP(지적재산권) ‘캐치! 티니핑’ 컬래버 패키지는 티니핑 시즌6의 로열핑을 활용한 디자인의 ‘빼빼로 초코’와 ‘빼빼로 화이트쿠키’ 2종을 만나볼 수 있다. 8개입 패키지로 운영되며 패키지 안에는 다섯 개의

각기 다른 디자인을 모두 포함해 무작위로 8개 들어간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버추얼(가상) 아이돌 그룹 ‘이세계아이돌’ 온팩도 선보인다. 여섯 가지 빼빼로 정규 운영 맛이 모두 들어가 있는 어썬트 패키지를 이세계아이돌 멤버들로 꾸몄다. 구성품에도 각 맛마다 어울리는 멤버들이 한 명씩 들어가 있으며 멤버 모두가 담긴 포토카드 1종도 만나볼 수 있다.

컬래버 패키지 외에도 마음을 주고받기 좋은 빼빼로데이 기념 패키지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기프트 팩’ 패키지는 초코, 아몬드, 초코필드 3종이 각각 두 개씩 들어가 있으며, 날개에는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등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밖에도 여섯 가지 맛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샘플러’ 패키지, 재미있는 모양의 ‘캐리어’, ‘편지지’ 패키지 등 여러 가지 구성이 준비되어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유통업계, 연말 앞두고 대대적 할인행사 돌입

대형마트, 장바구니 물가안정 초점
이커머스업계, 테마형 기획전 마련
백화점업계, 가을·겨울 의류 등 할인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백화점, 면세점 등 유통업계가 추석 이후 대대적인 행사에 나섰다. 최장 10일간 황금 연휴가 끝난 후 일상 속으로 복귀하는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다. 2차 소비쿠폰 지급과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 허용,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여러 호재가 겹치며 연말 대목까지 노린 이벤트가 시작됐다.

대형마트는 명절 직후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홈플러스는 오는 15일까지 ‘홈플러스 MEGA 골든위크’ 2주차 행사를 열고 인기 먹거리를 파격가로 내놓는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대상으로 ‘호주청정우 살치살’을 50% 할인하고, 7대 카드사 이용 시 ‘호주청정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한다. 봉지라면 3개 묶음 할인과 스낵 10+5 행사 등 가공식품 행사도 진행한다. 특히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19일까지 ‘해남 절임배추(20kg)’ 등을 할인된 가격에 사전 예약하는 ‘홈플러스 김장대전’도 시작했다.

이마트 역시 오는 15일까지 대표 신선식품과 간편식을 할인한다.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수입 냉장 삼겹살·목심’, ‘국산 생새우’ 등을 20% 저렴하게 내세우며 ‘깡어 연어 모듬회(360g 내외)’를 할인가에 선보인다. 연휴 후유증을 달



명절 이후에 맞춘 MEGA 골든위크 행사를 여는 모습. 유통업계가 추석 이후 소비자를 찾아가는 행사에 나섰다

/홈플러스

래줄 피코크 ‘송탄식 부대찌개’, ‘조마 짬뽕’ 등 간편식도 20% 내세운다. 이와 함께 ‘10월 가격파격’ 상품 55개 품목을 공개하고, ‘다진마늘(500g)’, ‘손질오징어(대)’ 등을 이달 29일까지 특가에 선보인다.

이커머스 업계는 테마형 기획전으로 맞불을 댔다. 쿠팡은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13일까지 ‘와우세일페스타’를 진행한다. 식품, 생활용품, 뷰티 등 14개 카테고리에서 2만여 개의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알뜰장보기’, 럭셔리 뷰티·디지털 기기 등을 모은 ‘나를 위한 선물’, 닭가슴살·운동용품 중심의 ‘급찜급빠’ 등 테마관을 통해 고객의 필요에 맞춘 쇼핑을 제안한다.

11번가는 11일부터 사흘간 ‘10월 월간 십일절’을 열고 명절 증후군을 이겨

내는 데 도움이 될 헬스케어 용품, 건강 기능식품 등을 최대 78% 할인된 타임딜로 선보인다. 연휴 후유증을 겨냥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한삼인 홍삼’ 등을 비롯해 ‘허닭 닭가슴살 스테이크’ 등 다이어트 식단 상품도 할인가에 내놓는다. ‘경동나비엔 카본매트’, ‘크룩스 라인드 클로그’ 등 가을·겨울 대비 상품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백화점 업계는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에 맞춰 가을·겨울(FW) 의류 수요를 공략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현대백화점은 판교점, 목동점 등에서 다양한 의류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판교점은 이달 23일까지 프리미엄 캐시미어·울 브랜드 ‘에르호스’ 팝업 스토어를 열어 최대 60% 할인하고, 오는 19일까지는 퍼 브랜드 ‘마리엘렌’ 제품을 최대 70% 할인한다.

롯데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맞이에 분주하다. 쇼핑을 넘어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명동본점에는 여행의 추억을 엮서에 담아 해외로 무료 발송해주는 ‘베러 메모리즈 포스트’ 이벤트 존을 마련했으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퍼스널컬러 진단 클래스’를 열어 맞춤형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항공(JAL) 마일리지 적립 프로모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촬영지로 유명한 서울남방진흥센터 연계 혜택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손종욱 기자

롯데마트, 인니 발리점 매출 50% ‘쎄쎄’

도소매 하이브리드 전략 성과

롯데마트의 도소매 하이브리드 전략이 인도네시아 발리점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8월 21일 재단장한 발리점이 7주간(8월 21일~10월 10일) 매출이 리뉴얼 전보다 50% 상승했으며, 방문객 수는 3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K-푸드와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진열 확대 전략이 현지 소비자와 관광객에게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마트는 리뉴얼을 통해 기존 60%

수준이었던 먹거리 진열 면적을 90%까지 확대했으며, 매장 입구에 떡볶이, 닭강정 등 100여 종의 K-푸드를 판매하는 즉석조리 식품 코너 ‘요리하다 키친’을 전면 배치했다.

또한, 호주산 와규를 새롭게 선보이는 농수축산물 코너 ‘FRESH’와 K-푸드를 비롯한 수입 식품 코너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베이커리 카페와 발리 기념품 매장을 신설해 현지인과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포장 상품 ‘사셰(Sachet)’ 구색을 강화해 도매 고객 공략에도 나섰다.

/손종욱 기자

신제품

세븐일레븐, ‘디지게매운’ 간편식 6종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매운맛 명소로 유명한 ‘온정돈까스’와 손잡고 ‘디지게매운’ 콘셉트의 간편식 6종을 이달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매운맛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세븐일레븐의 매운맛 간편식 매출은 올해도 10%가량 증가했다. 이에 세븐일레븐은 ‘매운맛 끝판왕’으로 불리는 온정돈까스와 협업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업 상품은 온정돈까스의 시그

니처 소스를 그대로 활용했으며, 매운맛 강도를 ‘디진다맛’, ‘눈물맛’, ‘양념맛’ 3단계로 구분했다. 대표 상품인 ‘디지게매운등심돈까스(디진다맛)’ 도시락과 ‘디지게매운돈까스감밥(눈물맛)’을 비롯해,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위한 ‘디지게매운통치킨버거(양념맛)’ 등도 함께 내놓는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출시를 기념해 이달 15일부터 말일까지 ‘디지게매운등심돈까스’ 등 2종 구매 시 음료를 무료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손종욱 기자